



1999년 7월, 아버지께서는 당신 생일날에 세상 여행을 마치고 돌아 가셨습니다.

엄마랑 결혼 1년 만에 전쟁이 났고 아버진 그때 다리를 다치셔서 평생 지팡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걸 스카우트를 하면서 무슨 행사였는지 인천의 스카우트들이 보도 행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진이 도원교에 이르렀을 때 시끌벅적한 와중에 '광희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한 눈에 들어 왔지만 난 뭇들은 척 못본

척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릴 땐 울랐는데 사춘기를 지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지팡이를 짚은 아버지의 모습이 부끄럽게 생각 되었던 것입니다



이화여대에 떨어지고 영영 울면서 이화교를 걸어 나올 때 아버진 굳이 백화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미도파 백화점에서 아버지는 마치 개선 장군을 축하 하듯이 웃과 구두, 핸드백등 많은 것을 사주셨습니다. 영영 거리며 우는 막내딸이 무척이나 안쓰러우셨나 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막내딸을 예뻐해 주신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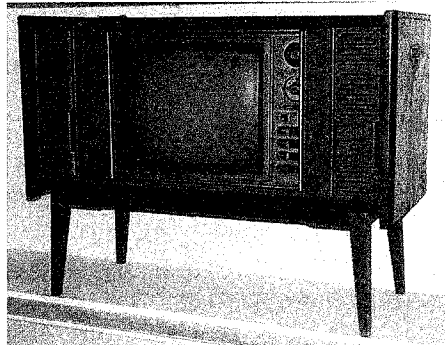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아버지를 외면했던 그 일이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맘속에 남아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이후로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아는 체했지만 그때 그 순간은 지워 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땐 그랬지▶ 자녀들이 이런 TV를 알까요?

가정환경 조사서에 TV가 집에 있는지 항목에 자랑스럽게 표시하면 부자이던 시절. 황금박쥐, 여로, 웃으면 복이와요, 김일 레슬링..... 우리를 울고 웃겨주던 순서들이 끝나면 TV Box의 미달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개 다리까지 있어 자랑스럽게 방 한쪽에 놓여 있던 그 날의 TV에는 추억도 한 줌에 싸여 미달이 문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9권 4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11월 18일
☎ 369- 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옛날 하늘나라에 곧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아기가 있었다요.

그 아기는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작고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서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지. 그 천사가 널 돌봐줄 거란다."

"하지만 여기서 전 노래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지냈는 걸요."

"지상에서는 네 천사가 널 위해 노래하고 미소지어 줄 테니까 넌 천사의 사랑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될 거란다."

"하지만 전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죠?"

"네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한테 얘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네게 말하는 걸 가르쳐 줄거야."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땐 어떡해요?"

"그럼 네 천사가 네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 줄거야."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 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 하란 말인가요?"

"네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보호해 줄 꺼야."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너무 슬플텐데요..."

"네 천사가 나에 대해 얘기해 주고,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거란다. 난 늘 네 곁에 있을 거지만 말야."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벌써 지상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 제 천사 이름이라도 좀 알려 주시겠어요?"

"네 천사를 넌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란다..."

◀말씀따라 행하기▶

세례 받을 때, 성찬식 할 때
진지하게 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종종 새롭게 하자

◀인품따라 행하기▶

효도하고
또 효도하라
그래야 하나님과 세상이
협조한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Calvary(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312장	다 같이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찬 송 Hymn	308장	다 같이
기 도 Pray		최득수 안수집사
	『하나님 감사 합니다』	
	아동부. 학생부. 성가대	
성경봉독과 설교 Scripture Reading & Sermon	잠언 3:1-6 세상의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05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1,760 총액: \$ 405,537.70

◆11월 예배위원◆

◆11월의 교회력◆

일자	기 도	주차안내	안 내
4	정희자		<현관>
11	조재근		노은숙 임혜자
18	최득수	최현철 서재오	<성전입구>
		황존직	관광순 정희자
25	최재학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주 일	모임 행사
7		정기구역예배(9)
14		
21	추수감사주일	구역장.인도자 헌신예배(21)
28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 위해 5분 매일 교회 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pm

1.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모자랐던 것이 참 많았는데 돌아보니 채워주시며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들도 이처럼 또다시 주실 것을 믿으며 올 한해 채워주시며 같이 걸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함께 나눔 식사를 위해 각 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2. 추수감사주일 꽃 봉헌&장식: 이순옥 성도
3. 모임: (1)구역장, 인도자 모임: 식사 직전
(2)남여선교회 회장, 총무 모임: 식사 후
4. 구역장, 인도자 헌신예배: 금주 수요예배 <설교> 차정규 목사(서울 신앙교회)
*구역 식구를 위해 섬긴 믿음 그대로의 모습 품고 은혜로운 예배드립니다.
*모임: 예배준비를 위해 수요일 오후 6:45에 모입니다
5. 인도자. 구역장 Alpha 성경공부: 금주는 헌신예배 관계로 휴강합니다.
6. 설교 CD 제작발행: 예배부 방송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교회홈페이지: "설교" -> "설교CD 신청")
7. 청년부 총회 결과: <회장>현종민 <총무>윤혜민 <서기>송범수

◀착한 시인들▶ 꽃만 보고 왔네
김구식

아직도 난 그렇게 믿고 있지
절대로 그 소녀를 보러 간 게 아니라고
복사꽃 분홍 뺨 담장을 넘어 오길래
그저 그 향기가 궁금했을 뿐이라고
지금쯤은 무너져 내리고 스투트 지붕 없어놓았을 그 집
영성한 돌담도 시멘트 담으로 바뀌어 있을 그 집
그렇게 길어 보였던 골목길도 가보면
몇 발짝 안 될 거리
단지 꽃망울이 봉긋한 소녀 가슴 닮았길래
그 향기가 소녀의 것인지 아닌지
그냥 확인만 하고 올 양으로 갔다고
생각도 못한 소녀 눈망울이 꽃에 얼른거리길래
숨 가쁘게 달려서 붉어졌을 뿐인 뺨 어루만져 식히며
절대로 그 소녀 때문이 아니라고
내 교과서니가 어떠했는지 기억도 못하면서
희미해져 가는 그 동네의 기억 속에서
지금도 나는 손을 내젓네

예배 후 집으로 가면서
일부러 Parnell의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Park로 지났습니다. 걷는 공원에서는 굳이 얼굴을 장미에 갖다 대이지 않아도 장미향을 맞기엔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여배우나 농익은 여인이 때 울려질 만큼 설탕같은 장미꽃냄새, 그래서 장미인가 봅니다.
향이 없는 장미에서 얼굴을 때면서는 불현듯 어린시절 동네 '돌마리'의 얼기설기 돌담에 핀 나팔꽃들의 꽃담이 그리웠습니다. 그때 같이 교회 다니며 몇 집 건너에 살던 '경자'는 어디에서 사는지.